

한전 관련기업 100곳 나주혁신도시 온다

오는 11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하는 한국전력으로 인해 관련 기업 100여곳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클러스터용지 등에 대한 일부 투기 움직임과 관련 균질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악취 문제 등 만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정식에서 혁신도시 내 투기 금지와 호재원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 지사가 나동근 광주지방국세

李지사 “투기 균질책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정식

청장에게 투기근절 조치 방안을 요청, 국세청도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조현의 한국전력 사장과 지난 17일 면담한 결과 혁신도시에 관련 기업 100곳 정도가 한국전력을 따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며 “이들 기업들이 제때 이전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균질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호해원의 죽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0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이 통합된 정부기관이다. /윤현석기자chado@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정식이 18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신청사 광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신정훈·박혜자 국회의원,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신용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전남도 보건위생분야 ‘우수’

광주 문화관광·안전 최하위

안행부, 광역단체 합동평가

광주시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반면 문화관광과 환경산업, 안전관리에서는 최하위의 성적을 냈다. 전남은 보건위생 분야에서만 최고점을 받았으며, 일반행정과 지역경제, 환경산업, 종점과 제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합동평가에서 정부 28개 부처는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이용해 9개 분야에 걸쳐 36개 시책의 16개 시도별 추진성과를 3등급(가, 나, 다)으로 평가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제주가 가등급을 받은 반면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은 다등급에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광주, 인천, 경기, 충북, 제주가

우수했지만,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남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대구, 대전, 강원, 전북, 제주가 상위권에 올랐고, 전남,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추진 성과가 부진해 다등급을 기록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이 가등급에 들었고 광주, 인천, 경기, 충남, 경북이 다등급을 받았다.

충북과 제주는 전체 9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대구와 대전은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다수 국가주요시책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는 서울, 인천, 전북 등과 함께 2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며, 전남은 울산, 경북과 함께 겨우 1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안행부는 올해 합동평가에서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치단체 실적을 더 체계적으로 검증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장 공약 점검 조례안 발의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광주시의회 조오섭(새정치·복구 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 공약사항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정리해 연 2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수렴 항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50명 내외의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해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쌀 관세율 513%로 확정

다음달 WTO 검증 돌입

FTA·TPP 양허대상서 제외

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kg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30원에서 38만8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177원에서 52만2134원으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된다. 국내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해온 저율관세율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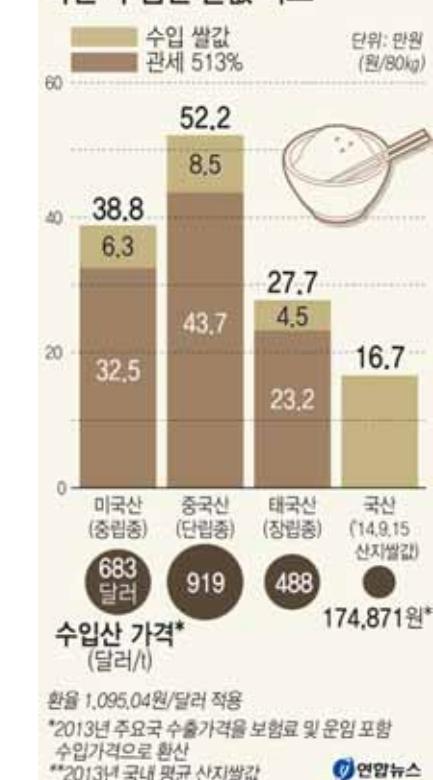
이는 관세화 유예로 그동안 져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의무수입쌀로 해외원조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3년간 평균자 수입물량의 5% 이상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폐지해 ‘글로벌 퀘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율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이는 관세화 유예로 그동안 져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의무수입쌀로 해외원조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3년간 평균자 수입물량의 5% 이상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폐지해 ‘글로벌 퀘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율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이는 관세화 유예로 그동안 져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의무수입쌀로 해외원조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3년간 평균자 수입물량의 5% 이상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폐지해 ‘글로벌 퀘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율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정부는 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13% 관세부과 후 국산·수입산 쌀값 비교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 10여 명이 낙입, 정부의 일방적인 쌀관세율 발표에 격렬히 항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진행하던 참석자들을 향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져 농림부의 보고가 4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내년 쌀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 쌀산업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쌀 산업발전대책의 기본 방향은 ▲농가 소득 안정 강화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쌀 소비·수출 촉진 등이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현행 쌀 직불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예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을 계획해 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 시 소득 안정 효과가 높아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합’ 도입을 검토하고 이

를 위해 도상연습(시뮬레이션)과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보장보합은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균 경작면적 200ha 이상의 들판경영체(50ha 이상의 집단화한 들판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경영체)를 현재 158곳에서 2024년까지 6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비·건설설비 지원 규모와 지원 장비를 확대하고 들판경영체 범위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상한을 현행 50ha에서 400ha로 인상하는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4년까지 경작규모 6㏊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 가구로 늘리고 쌀 전업농의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연합뉴스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경품 행사

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선물1 기념품(택1)

선물2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선물3 계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 1등 | 황금열쇠 순금 1냥(1명)
- 2등 |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 3등 |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3명)
[동반 1인 포함]
- 4등 |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증정 당첨시 상위 품목으로 증정.
제세공과금 분부부담

가전제품 상품권 1,000,000 원

※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대인동 한미소핑 1층)
총장지점 223-7217, 223-7218(총장로5가 입구)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11월(예정) 중도금 무이자 78/75

1. 실입주금 2천만원대(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양방향 공사 예정! 편면 교통환경의 혜수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 예상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곡청솔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면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위치: 용봉동(순천방면) 용봉현대아파트 앞

전세금 062) 385-3080